

Analyzing the Impact of Educational Experiences on Local Settlement Intentions among Students at Regional Universities

Hajin Kim

Daeje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educational experiences of students at regional universities on their intention to settle 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explore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higher education to local development, thereby providing insights into ways of enhancing students' willingness to remain in the region.

[Contents] To accomplish this,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educational experiences affect students' local settlement intentions, focusing on students enrolled at regional universities. Data were drawn from the Student Satisfaction Survey, the Korean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K-NSSE), and the Regional Engagement Survey to examine differences by settlement intention level and correlations among key variables.

[Conclusions] As a result,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local settlement intention reported significantly greater satisfaction in areas such as major and general education, learning environment, and regional engagement. Regional identity factors—such as willingness to settle, regional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mmunity—showed particularly strong associations with educational experiences. Correlation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regional engagement was positively linked to academic challenge, faculty interaction, campus environment, and student outcomes ($R = .454 - .553$), suggesting that it is an integral part of student learning and satisfaction, not merely an external activity.

[Keywords] University Education, Local Settlement, Regional Engagement Survey, University Student Satisfaction Survey, K-NSSE

* **Corresponding author** Hajin Kim (Professor, University Performance Management Center, Daejeon University)

E-mail : happynding1@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지역대학 재학생의 교육 경험이 지역 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하진

대전대학교 대학성과관리센터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대학 재학생의 교육 경험이 지역 내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등교육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여 정주의사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경험이 지역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K-NSSE, 지역참여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정주 수준별 차이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의 교육만족도와 지역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주 수준(상·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지역정주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전공·교양교육, 교육환경, 지역참여공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지역정주의지, 지역몰입, 지역참여의지, 지역사회이해 등 지역 관련 요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지역에 대한 애착과 참여 의식이 학생의 교육 경험과 정주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재학생 교육수요자 만족도, K-NSSE, 지역참여실태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요인 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참여실태는 학업도전, 교수·학습 경험, 대학환경, 학생성과 등과 밀접한 연계를 보였다. 이는 지역참여 경험이 단순한 외부 활동이 아니라, 학업 역량, 교육 만족도, 정서적 몰입 등 대학 교육성과 전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정주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개입, 즉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협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정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대학교육, 지역정주, 지역참여실태조사,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K-NSSE

I. 서론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등교육기관, 특히 지방대학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 공급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주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3)을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본격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Ministry of Education, 2024)에서도 대학의 지역 정주 유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고등교육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청년층을 양성하는 데 중추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서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 이 실제로 지역 정주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지역대학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이동,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같은 결과 중심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학 교육과정 자체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과정적·심리적 영향 경로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정주의사라는 다차원적 행위의 형성과정에서, 대학 교육 경험과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실증연구를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 경험과 정주의사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학술적인 기여를 넘어서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실증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의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대학 재학생의 교육 경험이 지역 정주의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고등교육 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지역참여실태조사 등 다원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정주 수준(상·하)에 따른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정주의사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경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교육성과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특히 대학 교육 경험이 지역에 대한 인식 및 공동체적 소속감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주 수준별로 규명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전략적 교육 기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단일 지표나 단면적 설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만족도, 학부교육실태, 지역 참여실태 등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다원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경험의 복

합적 구조와 그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 평균 분석을 넘어, 지역 정주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교육 경험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작용 경로와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보다 실증적이고 정책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대학 재학생의 교육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한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청년 인재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계하여, 교육 경험이 공동체 소속감 형성 및 지역 정착 의지에 미치는 영향 구조를 실증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대학의 전략적 교육 기능을 지역 지속가능성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대학 재학생의 교육 경험이 지역에 대한 인식과 정주의사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서적·인지적 교육 경험 요소를 포함한 세 가지 조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정주의사 수준에 따라 학생 집단을 구분하고, 주요 변수 간 차이 및 상관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육 경험이 지역에 대한 인식, 소속감, 그리고 장기적 정착 의지에 미치는 작용 경로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나아가 제언에서는 지역대학이 정부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교육 설계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지역 정주(local settlement)는 개인이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와 생활방식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거주를 넘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서적 애착, 공동체 소속감, 사회적 참여 의지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정주의사(local settlement intention)는 개인이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심리적·행동적 의지를 의미하며, 단기적 이주 선택이 아닌 장기적 지역 정착 가능성과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다.

최근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정주의사에 대한 탐색은 단순한 이주 행태 분석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의 지역 연계성을 조명하는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정주의사는 개인의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조건, 문화 인프라, 그리고 교육 경험 등 다양한 요소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Choi, 2024: 113; Choi, 2024: 119), 특히 지역 연계 교육 경험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학교-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

화하는 경향을 보인다(Joeng, Yang, & Jeong, 2024: 505-506).

이때, 교육 경험은 단순한 수업 수강이나 성취 수준을 넘어, 학생이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감하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동료 간 협력, 학습 환경,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지역 참여는 학생이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으로, 이러한 교육 경험은 학생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애착, 그리고 정주의사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청년 및 대학생의 지역 정주의사 형성에도 유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첫째,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유무는 청년 정주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취업 기회가 마련된 경우 지역에 잔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Jang, Lee, & Lee, 2023: 519). 둘째,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기준으로, 의료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질이 높을수록 정주의사도 강화된다(Jang, Lee, & Lee, 2023: 135). 셋째, 포레 및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적 유대와 참여 경험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 형성을 촉진한다(You, & Lee, 2023: 136). 넷째, 지역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친숙함과 이해를 제공하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Baek, 2022: 405).

이와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은 정주의사 형성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제3의 역할(third mission)’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Goddard와 Kempton(2015)은 대학이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기관임을 강조하였으며, OECD(2007) 또한 대학의 지역 기여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지자체와의 협업,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한 대학의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기능 강화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4;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3).

특히 지방 소재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한 연계를 요구받으며, 다양한 방식의 지역참여 기반 수업과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경험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높이며, 정주의사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삶의 만족도 및 정주의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Kim, & Hur, 2023; Kim, & Lee, 2022: 279),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역 공동체와 연결될 때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교육 경험은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한 강의 수강이나 학습 결과뿐 아니라, 교수와의 관계, 포레와의 상호작용, 캠퍼스 내 경험, 지역사회 참여 등은 모두 교육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경험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에 있어서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 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육 경험, 지역사회 참여, 삶의 질 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층의 정주의사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교육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학생 개개인의 정주의사 형성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이는 대학이 지역사회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의 교육 경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교육만족도 조사는 재학생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과 만족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경험의 주관적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는 학생의 학습 참여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인지적 도전 경험, 캠퍼스 환경 인식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지역참여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경험과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결 정도 및 정서적 소속감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한다.

이 세 가지 지표는 각각 교육의 질, 만족도, 지역 연계성이라는 교육 경험의 상이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 정주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인을 보다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기반이 된다. 이는 대학 교육의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초가 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지방에 소재하는 D대학교 6개 대학 및 47개 학과(부)/전공을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지역참여실태조사 참여자 중 모든 진단에 참여한 248명의 데이터를 통합 표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각 조사의 참여자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조사에 공통적으로 참여한 고유 응답자를 기준으로 교차 검토를 통해 식별하였다. 측정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내 전산시스템과 온라인 웹기반(서베이몽키)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진단 조사별 응답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 현황

<Table 1> Overview of Survey Respondents

구분	응답자	분석 대상	응답자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1,232명	3가지 조사 중복 참여자	248명
학부교육실태조사	1,018명		
지역참여실태조사	852명		
전체	2,250명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활용된 재학생교육만족도,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지역참여실태조사 주요 요인 및 하위 요인에 따른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는 재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는 조사로 10개의 주요 요인으로 총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요인별 문항수와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요인별 문항 수

<Table 2> Number of Survey Items by Factor in the Student Satisfaction Survey

조사명	내용			Cronbach α
	주요요인	내용	문항수	
재학생 교육수요자 만족도	전공교육	전공교육에 관한 만족도	11	.872
	교양교육	교양교육에 관한 만족도	10	.900
	학사제도	학사제도에 관한 만족도	9	.916
	교육환경	교육환경에 관한 만족도	13	.915
	비교과	비교과교육에 관한 만족도	4	.929
	장학금	장학금에 관한 만족도	4	.915
	행정서비스	행정부서 및 학과행정서비스 만족도	8	.910
	대학생활	대학생활을 통한 전반적인 만족도	4	.909
	전반적만족도	대학의 전반적인 만족도	10	.911
전체			73	.986

2) 학부교육실태조사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는 학습경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만족도와 성과를 측정하는 조사로 7개의 주요요인과 17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요인별 문항수와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부교육실태조사 요인별 문항 수

<Table 3> Number of Survey Items by Factor in the K-NSSE

조사명	내용			Cronbach α
	주요요인	하위요인	문항수	
학부교육 실태	학업도전	유의미학습, 반성적학습, 자기주도학습	16	.923
	교수 및 교수와 학습	협력학습, 효과적인 수업전략, 다양한 교류, 상호작용	19	.864
	대학환경	교우관계, 교직원관계, 지원적대학환경	13	.853
	고효과프로그램	고효과프로그램	10	.891
	학생성과	진로성숙도, 대학몰입, 대학생활을 통한 학생성과	23	.945
	학습자심리	학업작지기효능감, 학업동기	9	.888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 관련	26	.895
전체			116	.974

3) 지역참여실태조사

지역참여실태조사는 교육부 주도 조사인 미래형대학생핵심역량진단(K-CESA)에 통합되어 시행되었다. K-CESA는 재학생의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대외 표준화 조사로 3개의 주요요인과

<표 4> 지역참여실태조사 요인별 문항 수

<Table 4> Number of Survey Items by Factor in the Regional Engagement Survey

진단명	내용			Cronbach α
	주요요인	내용	문항수	
지역참여 실태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 관련 이해 및 실태	4	.844
	지역참여 교육환경	지역과 대학 간 교육환경에 관한 이해 및 실태	6	.863
	지역참여 공감	지역 문제 및 이슈 관련 참여공감 실태	5	.915
	지역참여 정도	내-외부 지역참여 정도	6	.952
	지역참여 의지	지역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3	.889
	지역몰입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	5	.859
	지역정주 의지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지	2	.897
전체			31	.924

1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6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지역참여실태 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활용된 주요 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에 앞서 조사 간 상대적인 분석 결과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부 역 채점 문항 및 4점~8점 척도, T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지역 정주 수준(상·하)에 따른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지역참여실태조사 차이 분석, 둘째,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조사 주요 요인 간 관련성 도출을 위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지역정주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조사의 측정 변인에 대한 평균(M), 표준편차(SD)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전공교육만족도(M=78.92, SD=14.7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양교육만족도(M=76.12, SD=13.33), 교육환경만족도(M=75.55, SD=15.61), 학사제도만족도(M=74.28, SD=15.55), 지역참여공감(M=72.03, SD=14.69)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요인 보다는 전공교육만족도, 교양교육만족도, 교육환경만족도, 학사제도만족도, 지역참여공감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역정주 수준을 상·하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 결과, ‘상(75점 이상), 사례수 160명(65.04%)’, ‘하(20.00점 ~ 74.99점)’, 사례수 86명(34.96%)’로 나타났고, 지역정주 수준에 따른 주요 요인 중 비교과만족도, 장학금만족도, 행정서비스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전반적만족도, 학업도전, 교우 및 교수와 학습, 대학환경, 고효과프로그램, 학습자심리, 디지털리터러시, 지역 참여 정도를 제외한 주요 요인에서 상·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정주 수준이 높을수록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의 평균값도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역정주 수준 상·하 구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그룹은 지역정주의지(M=82.03, SD=10.37), 전공교육만족도(M=80.36, SD=15.32), 교양교육만족도(M=77.80,

<표 5> 지역정주 수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y Level of Local Settlement Intention

지역 정주 수준		전공 교육 만족도	교양 교육 만족도	학사 제도 만족도	교육 환경 만족도	학생 성과	지역 사회 이해	지역 참여 교육 환경	지역 참여 공감	지역 참여 의지	지역 몰입	지역 정주 의지
하: 20.16점 ~ 74.99점 미만	평균 (A)	76.24*	73.00*	71.60*	72.75*	66.62*	53.05*	60.95**	69.59*	62.02**	56.86***	44.33***
	n (%)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86 (34.96)
	표준편차	13.13	14.44	13.49	14.88	13.79	18.33	14.99	14.21	18.64	16.98	13.51
	A-C	-2.68	-3.12	-2.68	-2.80	-3.08	-3.76	-3.50	-2.44	-4.82	-5.76	-24.52
상: 75점 이상	평균 (B)	80.36*	77.80*	75.72*	77.05*	71.35*	58.83*	66.35**	73.34*	69.43**	65.72***	82.03***
	n (%)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160 (65.04)
	표준편차	15.32	15.58	16.40	15.83	13.75	16.78	15.35	14.82	17.20	14.35	10.37
	B-C	1.44	1.68	1.44	1.50	1.65	2.02	1.90	1.31	2.59	3.1	13.18
전체	평균 (C)	78.92	76.12	74.28	75.55	69.70	56.81	64.45	72.03	66.84	62.62	68.85
	P	.035	.019	.047	.039	.049	.013	.008	.048	.002	.000	.000
	n (%)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246 (100)
	표준편차	14.70	13.33	15.55	15.61	13.92	17.52	15.41	14.69	18.03	15.86	21.39

* : $p<0.05$, ** : $p<0.01$, *** : $p<0.001$

* : 상/하 구분값 75점은 표본집단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상(위) · 아래(하)로 구분함.

SD=15.58), 교육환경만족도(M=77.05, SD=15.83), 지역참여공감(M=73.34, SD=14.82), 학생성과(M=71.35, SD=13.75) 등 순으로 높고, 전체 평균과 차이는 지역정주의지(13.18점), 지역몰입(3.1점), 지역참여의지(2.59점), 지역사회이해(2.02점) 등(나머지는 비슷한 분포 1점대 차이)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그룹은 전공교육만족도(M=76.24, SD=13.13), 교양교육만족도(M=73.00, SD=14.44), 교육환경만족도(M=72.75, SD=14.88), 학사제도만족도(M=71.60, SD=13.49) 등 순으로 높고, 전체평균과 차이는 지역정주의지(-24.52점), 지역몰입(-5.76점), 지역참여의지(-4.82점), 지역사회이해(-3.76점) 등이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조사 주요 요인 간 상관행렬을 살펴보면,

<표 6>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조사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among Major Factors across Student Satisfaction, K-NSSE, and Regional Engagement Surveys

구분	전공 교육	교양 교육	학사 제도	교육 환경	비교과	장학금	행정 서비스	대학 생활	전반적 만족	학업 도전	교육 및 교수와 학습	대학 환경	고교과 프로그램	학생 성과	학습자 심리	디지털	지역 사회 이해	지역 참여 교육 환경	지역 참여 공간	지역 참여 정도 내부	지역 참여 정도 외부	지역 참여 의지	지역 몰입	지역 정주 의지
전공교육	Pearson 상관계수 1																							
교양교육		Pearson 상관계수 .738**	1																					
학사제도			Pearson 상관계수 .718**	1																				
교육환경				Pearson 상관계수 .679**	1																			
비교과					Pearson 상관계수 .598**	.701**	.822**	.797**	1															
장학금						Pearson 상관계수 .434**	.532**	.564**	.592**	.559**	1													
행정 서비스							Pearson 상관계수 .670**	.686**	.818**	.758**	.542**	1												
대학생활								Pearson 상관계수 .595**	.671**	.665**	.435**	.679**	1											
전반적 만족								Pearson 상관계수 .603**	.637**	.589**	.464**	.654**	.635**	1										
학업도전									Pearson 상관계수 .066	.084	.037	.036	.002	.045	1									
교육 및 교수와 학습										Pearson 상관계수 .018	.005	.005	.005	.005	.005	.039	.071	.016	.041	.018	.594**	1		
대학환경											Pearson 상관계수 .053	.008	.015	.015	.015	.045	.105	.033	.037	.008	.579**	.677**	1	
고교과 프로그램												Pearson 상관계수 .030	.020	.027	.027	.066	.053	.073	.116	.070	.310**	.501**	.444**	1

(계속)
 <표 6>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모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조사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among Major Factors across Student Satisfaction, K-NSSE, and Regional Engagement Surveys (continued)

구분	전공 교육	교양 교육	학사 제도	교육 환경	비교과 장학금	행정 서비스	대학 생활	전반적 만족	학업 도전	교육 및 교수와 학습	대학 환경	교과과 프로그램	학생 성과	학습자 심리	디지털	지역 사회 이해	지역 참여 교육 환경	지역 참여 공간	지역 참여 정도 내부	지역 참여 정도 외부	지역 참여 의지	지역 몰입 의지		
학생성과	Pearson 상관계수	.041	.017	.001	-.031	.000	-.027	-.013	-.061	-.065	.597**	.626**	.657**	.366**	1									
	Pearson 상관계수	.009	-.024	-.037	-.056	-.041	-.064	-.019	-.068	-.018	.636**	.534**	.598**	.286**	.708**	1								
	Pearson 상관계수	.050	.058	.026	-.006	-.003	.052	.021	.017	.043	.642**	.544**	.508**	.326**	.565**	.636**	1							
	Pearson 상관계수	.048	.090	.103	.022	-.031	.091	.025	-.021	.066	.357**	.332**	.347**	.256**	.356**	.294**	.305**	1						
	Pearson 상관계수	.114	.065	.089	.060	.047	.039	.051	.017	.066	.315**	.414**	.408**	.286**	.481**	.365**	.289**	.387**	1					
	Pearson 상관계수	.112	.047	.064	.003	-.013	-.063	.012	.038	.096	.454**	.361**	.337**	.164**	.333**	.412**	.352**	.579**	.355**	1				
	Pearson 상관계수	.043	.088	.076	.101	.051	.142*	.066	.080	.107	.182**	.392**	.242**	.536**	.228**	.082	.122	.291**	.302**	.110	1			
	Pearson 상관계수	-.029	.009	-.010	.005	-.023	.098	.036	.039	.103	.149*	.366**	.230**	.521**	.231**	.097	.158*	.306**	.285**	.112	.796**	1		
	Pearson 상관계수	.031	.092	.035	.040	.009	.132*	.076	-.024	.047	.500**	.417**	.472**	.280**	.363**	.476**	.423**	.331**	.393**	.528**	.230**	.244**	1	
지역몰입	Pearson 상관계수	.071	.062	.051	.023	-.024	.034	.050	-.005	.025	.521**	.438**	.487**	.307**	.553**	.554**	.442**	.480**	.478**	.431**	.263**	.305**	.587**	1
	Pearson 상관계수	.174**	.171**	.209**	.163*	.132*	.098	.130*	.070	.038	.107	.087	.199**	.044	.227**	.089	.007	.241**	.227**	.174**	.084	.110	.195**	.319**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대부분 요인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역참여실태는 학업도전, 교육과 교수와 학습, 대학환경, 학생성과 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하위 요인 간에서는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R=.434\sim.73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교육실태조사 하위 요인 간에서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참여실태조사의 경우 전공교육, 교양교육, 학사제도, 교육환경, 비교과, 행정서비스는 지역정주의지($R=.130\sim.209^{**}$)와 다소 약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의 하위 요인의 경우 서로 지역정주의지를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정적상관($R=.149\sim.55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도전은 지역몰입($R=.521^{**}$), 지역참여의지($R=.500^{**}$), 지역참여공감($R=.454^{**}$), 고교과 프로그램은 지역참여내부($R=.536^{**}$), 지역참여외부($R=.521^{**}$), 학생성과($R=.553^{**}$), 학습자심리는 지역몰입($R=.554^{**}$)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역정주 수준에 따른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조사 관련 변인 차이와 상관행렬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정주에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정주 수준에 따른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 결론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에 대한 측정 변인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과 지역정주 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평균값 분석 결과, 전공교육, 교양교육, 교육환경, 학사제도, 지역참여공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또한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정주 수준을 상(75점 이상)과 하(20.00~74.99점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전공 및 교양교육, 교육환경, 지역참여 등 주요 요인에서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정주의지, 지역몰입, 지역참여의지, 지역사회이해와 같은 정서적·인지적 요인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러한 차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참여 의식이 교육만족도 및 정주의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

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윤진, 박희현(202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지역 정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와, 김학실(2024)이 지역 내 공동체 관계성과 정서적 지지가 정주의사 형성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참여공감, 지역사회이해 등 정서적·인지적 요인이 지역정주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지역정주를 단순한 공간적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정착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연구 흐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정주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과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역 연계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지역 기반 프로젝트 학습 운영,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정규 교육과정 내 연계 등을 통해 학생의 지역 몰입과 정주의사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실천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론

재학생교육수요자만족도, 학부교육 및 지역참여실태의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주요 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 요인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참여실태는 학업도전, 교육과 교수·학습, 대학환경, 학생성과 등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여, 학생들의 지역참여 경험이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학업 역량 및 전반적 교육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역참여는 학생들의 학습성과, 정서적 몰입, 교수·학습 참여 등 교육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지역대학 혁신 담론에서 강조되는 학습자의 ‘지역 경험’ 중요성과도 맞닿아 있다. 오현규, 서정화, 박은진(2023)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역대학 혁신은 단순한 제도적 재구조화나 행정적 연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실질적 삶과 정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대학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참여 경험이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은 이를 단순한 교외 활동이 아닌 ‘교육과정의 내적 요소’로 통합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참여를 전략적 교육요소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학생 참여 촉진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학업도전 및 고효과 프로그램 등 내부 교육요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육만족도와 학습성과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지역대학 재학생의 교육 경험과 지역참여 수준이 지역 정주의사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전공 및 교양교육 만족도, 교육환경, 지역 참여공감 등 주요 요인에서 지역정주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지역참여 실태는 학업 도전, 교수·학습 경험, 대학환경 등과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대학 차원의 실천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정주 수준이 높은 학생 집단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단순한 교육의 질 개선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성을 심화하는 교육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지역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학습, 지역 관련 과목 확대 등의 정주 친화형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학생의 지역 몰입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공식 학습성으로 연계하고, 학생의 참여 동기를 높이는 인센티브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행정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 이해와 지역참여의지가 정주의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학생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주거·교통·문화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 지자체와 연계한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등의 생활 친화형 정주 지원 정책이 학생의 지역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제언은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주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러한 실천적 접근은 정주 의사 형성이라는 복합적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려는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대학이 축적한 교육 경험과 학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정책 실험이 가능해지며, 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주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단순한 교육공급자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주 의사 형성과정의 구조적 인과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험과 지역참여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나, 실제 지역정주는 진로 기회, 정서적 애착, 사회적 유대감, 정책 체감도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종단적 설계, 혼합방법 연구, 혹은 다중 요인 모형 기반 분석 등을 통해 지역정주 의사 형성과정의 동적 변화를 추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입 방안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Back, S. H. (2022). Latent Classes in the Campus Life Satisfaction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Related Factor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2(4), 399-423.
- Brown, R., & Mazzarol, T. (2009).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image to student satisfaction and loyalty with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8, 81-95.
- Chea, J. W., & Tak, H. Y. (2024). A plan to promote the regional innovation oriented university support system(RISE)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The Journal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 27(2), 21-45.
- Choi, Y. S. (2024).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Regional Settlement -Focusing on Gangwon Region-. *Landscape and geography(JAKPG)*, 34(4), 111-120.
- Goddard, J., & Kempton, L. (2015. 7. 2). The civic university Connecting the global and the local. Universities, Retrieved 2025. 5. 22. from <https://bully.kr/CsjdrMu>
- Jang, Y. M., Lee, S. J., & Lee, M. A.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Environment as a Settlement Condition and Settlement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18(4), 517-526.
- Joeng, J. R., Yang, Y. H., & Jeong, E. Y. (2024).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s in School-Community Curriculum. *The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4(2), 491-510.
- Kim, D. S., & Hur, S. U. (2023).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Settlement Intention of the Young and the Elderly in the Local Areas.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24(4), 102-121.
- Kim, H. S. (2024).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International Students' Intention to Settle Dow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Korean Wav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8(4), 65-86
- Kim, H. Y., & Lee, D. W. (2022). An Empirical Study of the Predictors of Settlement Intention in Youth Generation: Focusing on Youth Policy and Living infrastructure.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34(2), 261-288
- Ministry of Education (2024. 5. 1.). The Regional Innovation-Centered University Support System (RISE): Accelerating Preparations for Seamless Implementation. Retrieved 2025. 5. 22. from <https://bully.kr/EI3hgwZ>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3. 2. 3.). Basic Plan for the 2023 Regional

- Innovation Project Based on Local Government - University Cooperation. Retrieved 2025. 5. 22. from <https://bulky.kr/9XLFCwv>
- OECD (2007. 7. 9.). Understanding the regional contribu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 literature review. Retrieved 2025. 5. 22. from <https://bulky.kr/4mcmjZo>
- Oh, H. G., Seo, K. H., & Park, E. J. (2023).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Learner 'Local Experience' in Local University Innov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14), 783-803.
- Roh, Y. J., & Park, H. H. (2023).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local university students on life satisfaction: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intention to settle in the reg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al Research*, 6(2), 159-197
- You, K. H., & Lee, M. H. (2023). Relationship between Youth Policy Satisfaction and Settlement Factors of the MZ Generation in Jeong-eup City: Focusing on Youth Policy Utilization, Media Use, and Community Participation. *Media Convergence Research*, 35, 7-46.